



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HIV-양성반응자에게 주택, 교통 및 영양 지원 대상자임을 발표하다

뉴욕의 AIDS 연구소, 모든 HIV-관련 의료서비스를 권장하는 진료 안내를 진단 즉시 실시한다고 발표하다. OTDA, 긴급 대피소 수당 수령 자격을 크게 확대하다

예방 간호 확대는 뉴욕 주에서 AIDS 확산을 종식시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유례 없는 약속의 핵심 사항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의 모든 HIV-양성자가 주택, 교통 및 영양 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대피소 지원 자격의 대대적인 확대는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기술적 차이를 없애는 뉴욕주 보건부의 AIDS 연구소가 내놓은 정책의 결과입니다. 증상이 있든 없는 HIV로 진단 받은 사람들은 모두 케어를 통해 혜택을 입는 것으로 오랫동안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열정적이고 상식적인 지도를 받아 우리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채 살아가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맞서는 우리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HIV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현재 이 증상이 있든 없든 그 여부와 상관 없이 생명을 구하는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한 때 AIDS 위기의 진앙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궤적을 반전시켜 뉴욕주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적절한 케어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데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HIV 양성 반응자들에게 진료 이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 여세를 몰아 이 전염병을 영원히 종식시킬 필요성을 알아봐주신 Cuomo 주지사와 AIDS 연구소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날, 이는 일반 상식이 되었으며 HIV 진단 확정 즉시 바이러스 양을 억제하기 위해 케어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안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런 이유로, HIV 상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케어와 치료를 받을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 주택, 교통 및 영양 수당은 “증상이 있는” HIV 또는 AIDS와 같은 낡은 용어와 누가 HASA 서비스를 받는가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불필요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AIDS 연구소 발행 안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임상의/증상이 있는 HIV 질병 또는 AIDS”, “AIDS 또는 HIV 관련 질병”이라는 용어와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는 연구실에서 확인된 HIV 진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책 방침에 따라, 임시장애지원사무소는 HIV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월 교통 및 영양 수당과 뉴욕시 공공지원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의 30% 소득 상한선이 포함됩니다.

새 규칙은 60일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AIDS 전염병 종식을 위해

본 정책 방침은 Andrew M. Cuomo 주지사의 AIDS 전염병 종식 이니셔티브와 보조를 같이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테스트와 치료 활동을 늘려 신규 HIV 감염의 수를 연간 약 3,000명에서 2020년까지 750명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효과를 내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시작 이래 처음으로 18개월 이상 모자간 HIV 전파 사례가 없었습니다.

주지사가 뉴욕주의 에이즈 전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주는 치료 확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Medicaid에 등록된 사람들 사이에 PrEP 처방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정부는 이용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주정부가 매년 투입하는 25억 달러 이외에 여러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에 2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달러의 사용은 케어를 받고 있지 않던 6,000여 HIV 양성 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Brad Hoylman 주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뉴욕시의 저소득 주민은 HIV/AIDS 서비스국으로부터 주택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이제 더 이상 AIDS를 중증으로 키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지사의 조치는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가장 좋은 도구 중의 하나가 안정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HIV/AIDS 및 전과성이 적은 질병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분들에게 보다 좋은 건강 결과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전향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Deborah Glick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IV & AIDS에 꾸준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Cuomo 주지사께서 하신 오늘 발표는 많은 뉴욕주민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크나큰 성원은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의 건강을 약화시킨 필수 사항들을 다뤄줄 것입니다.”

뉴욕시의회의원이자 건강위원회 의장이신 **Corey Johnso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모든 저소득 HIV 양성반응 뉴욕주민들에게 HASA 자격을

확대해주신 Cuomo 주지사와 AIDS 연구소에 감사 드립니다. 요점은 주택 제공이 건강 관리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자격 확대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2020년까지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Housing Works의 총재 겸 CEO인 Charles K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된 주택 제공의 결여야말로 HIV에 걸린 많은 뉴욕주민들을 돌보는 데 엄청난 장애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주의 HIV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이용 확대는 2020년까지 주지사의 Ending the Epidemic 청사진의 핵심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HIV 양성반응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HIV 전파를 예방하는 조기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IV에 감염된 모든 뉴욕의 노숙자들에게 임대료 지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뉴욕주 법규를 변경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뉴욕주 및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과감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Gay Men’s Health Crisis의 CEO인 Kelsey Lou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에 관한 Cuomo 주지사의 활동은 뉴욕주에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킨다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이 전염병은 온갖 애로를 가득 담고 있지만, 뉴욕이 우리의 End the Epidemic 플랜 개발과 이행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가 뉴욕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은 우리 입법부의 활동이 조금 미진한 지금 우리 편에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Harlem United의 CEO인 Jacquelyn Kilm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arlem United가 돌보는 16,000여명의 뉴욕주민들을 대신해서 주택 제공이 보건 서비스라는 점을 말과 행동으로 인정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1991년 이후 Harlem United가 HIV와 AIDS에 걸린 사람들에게 주택 제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입니다. 오늘 발표와 함께 Cuomo 주지사 덕택에 우리 뉴욕주는 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데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및 성전환자 지역 사회 센터 전무 이사인 Glenda Teston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훌륭한 HASA 발표로 우리는 뉴욕주에서 AIDS를 종식시키는 데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뉴욕주민들이 안정된 주택이 부족함에 따라 계속 간호를 받으면서 질병의 진전과 HIV 확산을 막는 약물을 이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지사의 Ending the Epidemic 청사진을 통한 확고하고 명확한 약속을 보여주고 우리를 AIDS 종식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해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